

# 부산 스포츠 시상

Vol. **36**  
2023. 04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부산체육인

부산 골프, 세계 속으로 훌인원!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 영광의 인물

찬란한 펜싱 인생은 지금도 계속된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양원백 부회장

##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 배구는 수정에서 시작된다!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 구·군체육회를 가다

100세 건강시대를 위하여, 열쑤!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

## BSC 뉴스

-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화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 부산체육인

부산 골프, 세계 속으로 홀인원!

-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 영광의 인물

찬란한 펜싱 인생은 지금도 계속된다

-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양원백 부회장



##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 배구는 수정에서 시작된다!

-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 구·군체육회를 가다

100세 건강시대를 위하여, 얼썬!

-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



## BSC 뉴스

-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 부산 골프, 세계 속으로 홀인원!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최광식 회장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가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입증되면  
곧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과 마찬가지로든요.

“홀인원을 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파 파이프 홀에서 투온, 그러니까 퍼트로 이글도 했어요. 6월이라 잔디는 한창 자라있었고 거리가 엄청 멀었기 때문에 아마추어에겐 쉽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공이 잘 맞았어요.”

최광식 회장은 처음 골프를 접했을 때 스코어를 만드는 데 재미를 느꼈다.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해 입상할 정도로 골프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골프협회 회장직을 맡은 후에는 라운드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골프를 알리는 것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처럼 골프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부산광역시골프협회는 오래전부터 타 협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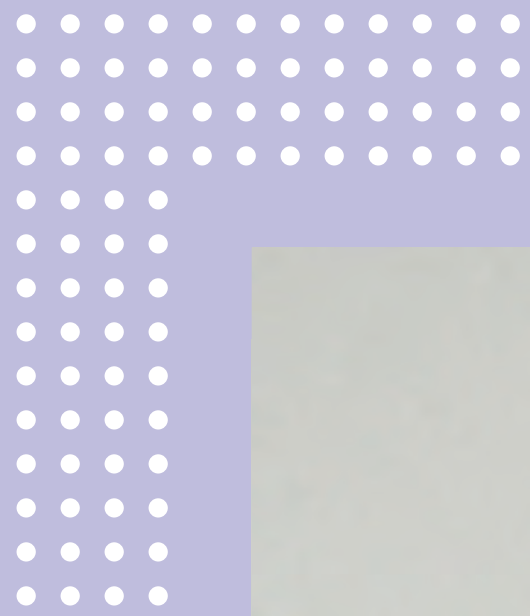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골프협회가 대회도 가장 많이 열고, 모든 부분의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협회에서 저희 협회의 운영 방식이나 사업 등을 배우러 오기도 해요.”

최 회장은 ‘부산광역시골프협회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협회로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학생 체육과 전문 체육을 육성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부산 골프가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2022년 전국체육대회 골프 종목에서 무려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초등부에서 부산이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휩쓴 데 이어, 주니어 국가 상비군도 배출하는 결실로 맺어졌다.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가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입증되면 곧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과 마찬가지로요.”

부산광역시골프협회는 선수 발굴 및 동호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광식 회장은 자신이 골프를 좋아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골프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골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 찬란한 펜싱 인생은 지금도 계속된다

부산광역시펜싱협회

양원백 부회장

펜싱은 상대와의 수 싸움이에요.

상대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하고

상대를 찢렸을 때 오는

쾌감은 엄청납니다.

어린 시절 영화를 통해 본 펜싱에 단숨에 매료되었던 양원백 부회장은 대양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펜싱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다. 항상 강당에 찾아가 선수들의 시합을 구경하고 경기 모습을 흥내 내곤 했는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에 선배들은 양 부회장에게 펜싱을 해보길 권유했다. 하지만 그의 신체 조건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펜싱을 만류했다.

“중학교 때만 해도 몸이 뚱뚱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펜싱할 체격이 아니었던 거죠. (웃음) 학교에 어머니까지 모셔 오라고 해서 ‘양원백은 운동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펜싱을 향한 양원백 부회장의 열정도 만만치 않았다. 끝내 펜싱을 시작하게 된 그는 대양중학교 강당 벽에 구멍을 낼 정도로 찌르기 연습을 했으며, 눈을 감을 때도 펜싱하는 모습을

그릴 정도로 진심으로 펜싱에 몰두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종별 대회에서 저희 팀(대양중학교)이 부산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1982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벨고등학교에서 무려 35년 동안 감독을 역임한 양 부회장은 선수들을 지도할 때 펜싱의 묘미인 ‘머리 싸움’을 강조했다.

“펜싱은 상대와의 수 싸움이에요. 상대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하고 상대를 찔렀을 때 오는 쾌감은 엄청납니다. 선수들이 그 짜릿함을 맛보길 원했기에 머리로 펜싱을 하라고 지도했죠.”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을 통해 펜싱 지도자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양원백 부회장. 유망한 선수를 발굴해 인근 초·중학교 펜싱부로 진학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부산이 다시 펜싱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끝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40년 넘게 지도자 생활을 해 온 것과 지금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 수정초등학교 배구부



## 부산 배구는 수정에서 시작된다!

수정초등학교 배구부는 1999년 창단 이후 20여 년 동안 선수를 육성하며 부산 배구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현재 프로배구에서 활약하며 전·현직 국가대표로 대한민국 배구를 책임지고 있는 양효진·정지윤(현대건설), 박혜민(KGC인삼공사) 등 다수의 선수가 수정초등학교 출신이다. 이처럼 명문 배구부로 알려진 수정초등학교는 2022년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13세 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찬란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배구는 단체 스포츠인 만큼 팀워크가 중요한데, 수정초등학교 선수들은 배려심이 깊은 만큼 자연스럽게 단합력도 길러져 있다. 수정초등학교는 인근 경남여자중학교와 경남여자고등학교 배구부로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만큼 앞으로 선수들이 배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꿈을 키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자 한다.



## 100세 건강시대를 위하여, 열쑥!

부산광역시동래구체육회(이하 동래구체육회)는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동래구 슬로건을 필두로 부산의 스포츠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V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열풍에 부응하여 동래구 여성 구민들을 대상으로 동래여성풋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하반기에 잠정 휴강이었던 야외 라인댄스 수업을 재개함으로써 현재 100여 명이 넘는 동래구 주민들이 배우며 즐기고 있다. 또한 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주부태권도교실’ 운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동래구국민체육센터, 동래구인공암벽장 등 가까운 곳에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클라이밍과 같은 이색 스포츠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앞으로 동래구체육회에서는 동래구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 개최

24km 코스 500명, 45km 코스 1,200명 참가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지난 4월 1일(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9년부터 개최한 부산시민자전거대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마련한 대회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4월에 즈음하여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연령이 참가하였으며, 순위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로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하였다.

본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모두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16년 연속 종합 5위 성과 · 크로스컨트리 4관왕 이의진 선수 MVP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3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동계스포츠 종목 임원, 선수,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은 금 10, 은 7, 동 18개로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종합점수 464점으로 16년 연속 종합 5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종목별 성적에서는 스키, 빙상, 컬링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여 표창패를 수상하였고, 개인 성적에서는 크로스컨트리에서 4관왕(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을 달성한 이의진 선수가 MVP를 수상하였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